



도·시·군의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9일 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및 정기총회에 남관우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시·군의회의장과 정현을 익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익산시>

전북, 첨단산업 육성 전초기지로 도약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⑤ 수소경제·첨단산업 특례]
도, 차별적 지원 아닌 신산업 테스트베드 활용 적극 어필
이차전지·바이오 미래 먹거리 발굴 동시에 전통산업 다지기도
생명경제 실현할 수소·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발판 삼아 첨단 신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차별적 요구가 아닌, 신산업의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이차전지와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전통적인 강점 산업인 탄소와 수소,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마련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비전이다.

지난 2023년 국가가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새만금에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배터리 재자원화 센터 등 기업 지원 인프라가 마련됐다. 더불어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R&D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진기업형 협업플랫폼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최고의 테스트베드 공간을 그려가고 있다. 도는 지난해 생명경제 바이오(산·학·연·병·관) 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바이오산업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바이오기업 150개사 유치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 특례를 바탕으로 개발-임상-인허가-생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북의 탄소소재 기술력과 의료 인프라를 결합해 혁신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한

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설계·제작·시험평가 및 임상·비임상 시험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간 수소용 폼 및 연료전지 인프라 4개소와 수소 생산기지 2개소(3.4톤/일), 수소도시(전주·완주, 부안) 기반을 다져온 전북자치도는 최근 현대자동차와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 생태계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한다. 이에 이번 특례를 기반으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정정수소 클러스터 에타 기획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 센터 구축 ▲수소특화단지 지정 준비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자체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 시장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새만금에서 자율주행차 및 농업기계 관련 정부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며,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센터를 구축해 설계부터 인증까지 아우르는 전 단계 공간을 마련한다. /최준호 기자

2036 전북 하계올림픽, 현장 평가 심사단 '만족감'

대한체육회 실사단, 전북 개최 역량준비 상황 긍정 평가
시설 점검 그친 서울시와 대조적...도민 환영 행사도 '한뫼'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현장 실사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도내 일원에서 진행됐다. 군산, 전주, 완주, 무주 등 주요 후보지를 방문한 평가단은 전북자치도의 올림픽 개최 역량과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현장 실사에서 전북은 다른 후보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올림픽 유치 비전과 전략을 평가단에 제시했다. 평가단이 방문하는 각 지역에서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500여 명이 환영 깃발을 흔들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현장 실사에서 전북은 다른 후보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올림픽 유치 비전과 전략을 평가단에 제시했다. 평가단이 방문하는 각 지역에서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500여 명이 환영 깃발을 흔들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도원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이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평가단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이번 현장 평가에서 전북의 '진정성'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처음에는 평가단 사이에서 '지방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현장 방문과 설명을 통해 이러한 의심이 사라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모든 현장 실사 일정을 함께하며 전북만의 올림픽 비전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연대와 화합을 강조하며 전북이 올림픽 개최에 최적화된 후보지임을 전달했다. 또 새만금 태양광 에너지(RE100)를 활용한 친환경 올림픽 전략과 기존 경기장 22곳, 임시 경기장 11곳을 적극 활용해 비용

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단의 신뢰를 얻었다. 평가단은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발전적인 조언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장과 인프라가 올림픽 이후에도 방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당부했다. 경기장 유산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에 따라 도는 평가단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올림픽 개최 이전부터 철저한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현장 실사를 마친 대한체육회는 국제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채택과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대의원총회에서 국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협의가 이어지며 국가적 차원의 유치 조직이 결성된다. /김관 기자

도, 고병원성 AI 전국 최다 발생...가금 농가 어려움 호소

도 소독차 배치·출입 통제·사육 제한 등 확산 방지 총력
김제 등 18개 농장 가금류 80만 수 살처분
농가들 겨울철 경제적 어려움 직면...현실적 보상해야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전북의 가금 농가들이 닭과 오리 등의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손해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해 말부터 이날 현재까지 도내 고병원성 AI 확진 가금 농가는 6곳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발생한 총 21건 중 30% 가량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 5일 김제 공덕면의 육용오리 농가를 시작으로 김제와 부안에서 꾸준히 고병원성 AI가 확산했다. 육용오리 농장이 5

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란계 농장이 1곳이다. 도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18개 농가의 가금류 80만7천마리를 살처분했다. 종류별로 닭 68만1천 마리, 오리 12만6천 마리다.

도는 김제와 부안에서 소독차 11대를 고정 배치해 매일 농장과 진입로 등을 소독하고 있다. 도내 주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가의 동절기 오리 사육을 제한했다. 통제 조소도 15개로 늘려 고병원성 AI 확산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제, 부안 지역 가금 농장 206

곳을 대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 결과 현재까지 이상 증세를 보인 가금류는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제에서 대를 이어 40년 이상 산란계 농장을 운영했다는 김모(52)씨는 "손해가 워낙 커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변 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아 우리 농장의 닭 2만마리 가량도 살처분했다"며 "시에서 보상해 준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어서 금전적 손해를 볼 것 같다. 거머쳐에 납품도 못 할 뿐더러 더 큰 문제는 AI가 계속 확산해 동절기에 산란계 사육을 아예 못하게 됐는데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울상이었다. /김은지 기자

진안고원
JINAN GROWN

청정 진안군의 맛을 수 있는 농특산물로
소중한 이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세요

진안고원을 바로가기

올 설에는 청정자연 진안고원의 빛깔고운 먹거리
진안 농·특산물을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5kg 선별세트: 명할 시가 반영

구입 문의처: 063-433-9474

수제짜과와 수제참고

도라지참고 500g W55,000
도라지참고 + 인후단 500g/14개 W75,000
단덕참고 500g W55,000
단덕참고 + 인후단 500g/14개 W85,000
물떡참고 1.25kg/50개입 W60,000

구입 문의처: 010-6533-0071

전북인삼농협

6년근 통삼농축액 240g W179,000 - W120,000
4개 구입시 W440,000
10개 구입시 W1,000,000

6년근 통삼베리코 플라스틱 15g-30개 W55,500 - W39,000
4개 구입시 W140,000
10개 구입시 W300,000

구입 문의처: 063-430-1928

마·이산한과

우림참방울과 소(1.2kg) W20,000
우림참방울과 대(2.4kg) W40,000
참방울과 + 풍유과 1.2kg W22,000
2.4kg W44,000
한라배구과(1.2kg) W54,000

구입 문의처: 010-4620-9778
http://naver.me/QV9rPwAa
http://www.310산한과.com

소떡우삼	산술우삼	신비당
· 통삼한 푸르미정 통삼 (통삼400g) W41,000 - W47,500(25%) · 통삼가래산술과 (300g*3개) W55,000 - W79,750(25%) · 통삼가래산술과 (300g*3개) W55,000 - W48,750(25%) · 통삼가래산술과 (300g*3개) W60,000 - W90,000(25%)	· 최선급 고대산술과 (20g*100) W55,000 - W79,750(25%) · 한가포 (180ml) W55,000 - W41,250(25%) · 최선급 고대산술과 (300g*3개) W55,000 - W53,750(25%) · 최선급 고대산술과 (300g*3개) W60,000 - W120,000(25%)	· 산술비트 250ml*4개입 (250ml*24개입) W55,000 - W41,250(25%) · 한가포 (180ml) W19,500 - W13,800(25%) · 통가포 (180ml) W14,500 - W10,800(25%)
돌안배영농조합법인	건포	다향
· 돌안배(통삼) 프라임 (300g*3개) W55,000 - W49,500(25%) · 돌안배(통삼) 프라임 (300g*3개) W45,000 - W41,500(25%) · 돌안배(통삼) 프라임 (300g*3개) W45,000 - W41,500(25%)	· 유기농(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2,250(25%) · 유기농(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2,250(25%) · 인후단(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2,250(25%)	· 통삼(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1,250(25%) · 통삼(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1,250(25%) · 통삼(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1,250(25%)
나눔부드	풍운야갯	애농
· 미연배(통삼)프라임 (150g*30) W35,000 - W35,000(25%) · 나한배(통삼)프라임 (20g*150) W45,000 - W33,750(25%) · 25입은 통삼(통삼)프라임 (150g*30) W35,000 - W28,500(25%)	· 미연 야갯(통삼) (800g) W19,000 - W14,250(25%) · 미연 야갯(통삼) (800g) W19,000 - W14,250(25%) · 미연 야갯(통삼) (800g) W19,000 - W14,250(25%)	· 유기농(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2,250(25%) · 유기농(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2,250(25%) · 유기농(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2,250(25%)
농길	훈제지 치즈 돈가스	진안고원 새역삼 떡갈비
· 인후단(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2,250(25%) · 단진원(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2,250(25%) · 미연(통삼)프라임 (100g*100) W55,000 - W42,250(25%)	· 훈제지 치즈 돈가스 (150g*10) W17,000 - W12,750(25%) · 훈제지 치즈 돈가스 (180g*5) W19,500 - W14,625(25%)	· 새역삼 떡갈비 (100g*10) W31,000 - W23,300(25%)

진안고원을 할인행사 1. 8. ~ 1. 17. (10일간) 진행됩니다.

진안군 온라인 쇼핑몰 : www.310산한과.com 진안고원을 검색하세요.
진안고원을 할인행사 1. 8. ~ 1. 17. (10일간) 진행됩니다.

道,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에 1천857억원 투입

하수량 지속적 증가...전년대비 175% 증액, 신규사업 7개소 등 하수도분야 사업 70개소 추진

전북자치도는 올해 농어촌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총 1천857억원을 확보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며 수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중설)사업 10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22개소, 소규모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4개소, 하수처리수재이용 1개소, BTL임대료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뉘며, 총 70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농촌과 도시지역간 하수도 서비

스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 확대와 수질개선을 위해 연초부터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에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군과 협력해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건의하며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섰다.

이 결과 '고창 용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 7개소(총사업비 517억)가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으며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사업 설계용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사업 중 '남원 인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 노후 관로를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전북자치도 공약사업인 '임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개발에 따른 하수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25년 국비 33억원(오수 16억, 임실 17억)을 확보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하수도 확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시군과 협력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공공하수도 확충 사업은 도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분야로,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김관영 도지사,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도박 문제 경각심 고취...“청소년 도박 근절, 전북이 함께합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 문제의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작년 3월부터 서울경찰청이 주관해 추진 중인 활동으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청소년기의 중독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 남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독예방 모범학교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중독의 위험성

을 스스로 인지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중독예방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청소년기의 중독 문제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작년 한해 동안 센터는 300여 명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총 333회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2천952건의 사례관리를 수행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국도외곽 먼섬 지원 시행...어청도 등 추가 지정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도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군산 어청도 와 부안 상왕등도 외에도 부안 하왕등도가 국도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될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이나 영해기선이 되는 섬을 대상으로 하며 항로거리와 같이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도 포함된다. '국도외곽 먼섬'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국가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설치, 불법조업 방지, 생활연구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지

원된다. 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본격화한다. 이 계획에는 도로·점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도외곽 먼섬은 우리 국토의 최외곽에서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보루로서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 확보의 관점에서도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도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항명' 박정훈 해병 대령 무죄 판결 환영

“군 사법체계 교란·부당 권력 실체...법정 서야 할 죄인은 권력 사유화·남용한 윤석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청년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다 역울하게 법정에서 섰던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군 사법체계를 교란한 부당한 권력의 실체를 밝히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청년 해병의 죽음에 드리워진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

과 해당 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을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과 그의 하수인인 이종성 국방부 장관 등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수사를 방해하고 급기야 박대령을 항명과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윤석열 일당의 은폐와 조작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고 특히 채 해병의 고향인 전북 도민은 자식을 떠나보낸 애절한 심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

히라고 요구해 왔다.

전북도민의 염원은 민주당 중심의 국회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으로 발현됐으나 윤석열 일당은 세 번의 거부권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부패한 권력과 부당한 압력에 맞서 군인의 양심과 국민의 상식을 지켰고 권력에 맞서 일시 법정에서 섰지만 정작 법원에서 단죄할 대상은 권력을 사유화해 남용한 윤석열이다

고 비판했다.

전북자치도당은 이제껏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 박 대령의 양심적 행동을 강력히 지지하며 특별법 거부로 좌절됐던 사건의 진상과 외압의 몸통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정훈 대령과 함께한 해병 전우와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북의 아들 채상병 가족의 아픔을 진실과 정의로 위로한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김윤덕 의원, 역사문화권 정비법 해결...“후백제역사문화센터 신속 추진”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지난 8일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

해 건축·택지조성·수목식재 등의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와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이 모호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주체가 상이해 사업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의 현존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

해서 국가유산청장의 승인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해 불허로 인한 사업제한이 우려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며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중점경관관리계획을 통해 관리토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실시

계획 승인시 국가유산청 소관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야 해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전주시가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기존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갖고 있던 행위제한의 모호성, 승인주체의 이원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해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이성운 의원,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시을)이 9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히 묻기 위한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및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제한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사면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범죄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

인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국민적 법감정에 반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

한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수호하며 중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를 높이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생활속 화재 예방 주의

멀티탭 전원이 아닌 플러그 뽑기!



난방기기를 장시간 켜놓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NO!



쓰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주세요

가스레인지 사용 시 조심 또 조심!



사용 전엔 환기를, 사용 후에는 밸브까지 잠그는 습관

난방기기 옆 가연물은 치우기!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난로 주변에 닿지 않도록 조심!

‘책의 도시 전주’ 도서관본부 4대 추진전략 제시

3대 책 문화축제 추진·문화관광자원 연계 도서관여행 운영 등 책 문화 산업 집중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의 도시답게 2025년 새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선도적인 독서문화 정책을 펼치고, 도서관과 서점, 출판계, 지역 작가 등의 역량을 모아 책 문화 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9일 도서관본부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책의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독서·출판·도서관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 전략은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 ▲모두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독서에서 산업으로, 책 문화산업 활성화 ▲지역 활력을 높이는 도서관 인프라 지속 확충이다.

먼저 시는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국제그림책페스티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 ▲전주독서대전 등 책을 매개로 한 3대 책 문화축제를 통해 독서문화 확산과 책문화사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오는 5월로 예정된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페스티벌’을 통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내외 그림책 작가들과 교류하고, 그림책 관련 체험 콘텐츠를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에는 독립출판물과 아트북 작가들이 신작을 홍보·판매하는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로 8회를 맞는 ‘전주독서대전’은 책을 주제로 시민과 교육계, 언론계, 동네서점, 작가, 출판사 등 모든 독서 생태계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주대표 3대 책문화축제와 연계한 도서관 여행 코스 등 특별 도서관 여행 코스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도 하며 휴식을 원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과 특수교육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여행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독서열을 올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연령별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시민의 독서열을 올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 20’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고, ▲고전 100권 함께 읽기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제14회 독서마라톤 대회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책을 읽을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역의 작은도서관



전주시가 2025년 새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선도적인 독서문화 정책을 펼치고, 도서관과 서점, 출판계 등의 역량을 모아 책 문화 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및 출판 제작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과 출판문화산업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한 작은도서관과 지역작가·지역서점 등과 협력해 주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책 축제를 개최하고, 독립출판 및 1인 출판 창업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주출판학교’와 지역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전주출판 출판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된 서신·완산·죽구름도서관에 이어 올해는 아중호수 내 음악 테마로 한 ‘아중호수도서관’과 에코시티 복합커뮤

니티센터 내 ‘에코도서관’을 개관해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아중도서관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어린이부터 청년, 어르신,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사업들을 통해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 함께 읽고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책문화산업이 전주의 경쟁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통합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가족센터’ 출범

가족 유형 상관없이 누구나 돌봄과 교육, 상담 등 이용 가능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전주시가족센터’로 새롭게 출범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가족 구성원의 유형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돼 있던 가족 시설이 올해부터는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주시가족센터’로 일원화돼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며, ▲취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아이 돌봄 등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가

족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해경 전주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간·접촉을 형성해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존에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으로 이용자를 분류하면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돼 추진되거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있어 통합이 필요했다”면서 “올해부터는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의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세심한 통합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관광거점도시 전주, 숙박관광객 지원혜택 늘린다

체류형 관광 확대 및 경제 활성화 위한 여행사 지급 인센티브 상향 지원...‘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입지 공고히’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주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을 위한 지원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전주시는 체류형 관광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난해보다 5% 이상 상향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체도 등록한 곳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한 단체 관광객이 전주에서 숙박해야 한다.

시는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숙박 관광에 한해 지원하며, 올해는 숙박 지원금을 기존보다 5% 이상을 관광객 유치에 최대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의 관광객이 전주에서 ▲숙박 1일 ▲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

소 이상 이용하면 전주지역 여행사는 1인당 2만5000원, 전주지역의 여행사는 2만 원의 숙박비가 각각 지원된다.

또한 2박의 경우 ▲숙박 2일 ▲관광지 1개소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하면 전주지역 여행사는 1인당 숙박비 5만 원, 전주지역의 여행사는 4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숙박 지원 금액이 1인당 5000원씩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단체관광객들이 한복 체험과 비빔밥체험, 부채만들기 체험 등 전주지역 유료 문화 체험을 이용할 경우 1인당 50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지원을 원하는 여행업체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고, 여행 완료 후 20일 전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주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을 위한 지원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거점도시 전주 여행상품 개

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신속 제설작업 지원

대설 관련 안전사고 예방 위한 후속 제설작업...시민 안전 앞장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양해성)은 지난 7일 전주시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밤사이 내린 폭설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른 아침부터 전주 지역자율방재단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특히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은 눈과 얼음 제거 등을 활용해 이면도로, 골목길, 인도 등 국민생활 밀접도로에 대한 후속 제설작업을 시행했으며, 취약 지역에는 연화칼슘을 추가 살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은 지난해 11월부터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 대비를 위해 전주지역 한파쉼터를 점검하고, 모래 적체량과 배수로 점검 예찰활동을 실시해 왔다.

양해성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은 일선에서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올겨울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1월 구성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재 양해성 단장을 필두로 총 5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역 임시주차장 20일 개방 이용객 불편 해소 기대

전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는 20일부터 역사 광장 전면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은 전주역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주역 전면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전주역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광장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기존 전주역 주차장을 폐쇄했으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옛 농심부지와 전주역 뒷편 장제마을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전주역 옆 옛 농심부지 임시주차장 운영이 종료되면서 후면주차장 이용 시 주차 후 육교를 지나 전주역까지 도보로 5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됐다.

시와 철도공단, 코레일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일정을 일부 조정해 지난 10월부터 역사 전면역 총 154만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왔으며, 현재 주차 차선도색까지 완료되는 등 공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운전 등 사전점검



전주역 전면 임시주차장 운영 안내

2025년 1월 20일(화)부터 운영

※ 후면주차장은 2025년 2월 3일 폐쇄합니다.

을 거쳐 개방일 당일 불편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언론보도와 시정소식지, 현수막·임간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많은 시민들이 전면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앞으로 전주역 전면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전주역 이용객의 주차와 승하차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강제추행 혐의’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방송 출연 등 외부에 알려진 것 이용해 다수 상대 범죄 저질러, 반성하는 자세 없어”

학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은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취약한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

서 학회 회원인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판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인상 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화재 사고로 숨진 번사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언론에 출연해 어려운 사건을 풀어내는 능력 있는 프로파일러로 이

름을 알린 인물이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는데, 파면은 공무원에게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대상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여가 절반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무안공항서 자원봉사 전개

김관영 지사, 긴급재난지원금 2억원 지급·4천여 명 식사 제공도

(사)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무안공항서 교통자원봉사단 부스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쳤다.

이날 무안공항 현장상황실을 찾은 김관영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 2억원 지급과 긴급구조 작업중인 군인과 경찰감시

반, 119대원들에게 3일 동안 4천여 명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식사는 원불교봉공회 전북교구(회장 안현진), 원불교봉공회 중앙, 광주, 전남교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또한 무안공항 1층에 자원봉사자 온기 나눔 마음쉼터를 마련,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온 관계자, 조문객, 자원봉사자들에게 차, 음료, 간식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했다.

마음 쉼터에서는 추운날씨에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풍년제과에서 수제초코파이 3천5백개, 슬지제빵소에서 전빵 600여개를 후원받아 제공했으며 유가족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위한 생화탕

및 수제초코파이를 추가 구매해 사고수습 완료일인 지난 6일까지 따뜻한 커피 등과 함께 지원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 신속하게 참여해 조속한 안정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최우수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도, 13개 지표 항목서 높은 점수 기록... 특별교부세 4천만 원 확보, 지역발전 재원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 부문 광역자치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공유재산의 계획, 관리,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재정 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정성 ▲재산관리 ▲재산활용 ▲가점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진행됐다.

도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광역자치도 중 최우수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재정 운용에 한층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역 발전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 부문 광역자치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준호 기자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취임

"과학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현하고 청렴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득순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이 지난 7일(화)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득순 본부장은 1968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95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해 성과혁신처장과 인재개발원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이득순 본부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일구어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전북본부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득순 본부장은 1968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95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해 성과혁신처장과 인재개발원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최준호 기자

최첨단 기술 활용한 콘텐츠 제작 노하우 공유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9일 'LED 버추얼 프로덕션 및 비주얼라이제이션 제작 시연 세미나' 개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9일 전주신산업융합지식센터에서 'LED 버추얼 프로덕션 및 비주얼라이제이션 제작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CONNECT Plus+'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진흥원이 지역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화와 영상, 뉴미디어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최첨단 LED ICVFX(In-Camera Visual Effects)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무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신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과 사례가 소개돼 지역 내 콘텐츠 제작자와 영화·영상·뉴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창의적인 환경과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초고화질 LED 스크린을 활용한 실시간 렌더링 기술 시연도 마련돼 참

석자들이 최첨단 콘텐츠 제작 방식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구체적으로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화 VFX 및 VP 전문가인 박영수 더션비주얼크리에이티브 부사장과 허윤주 ARRI 아시아태평양 사업부 총괄, 이용현 LG전자 방송/VP 글로벌 마케팅 담당, 강지형 SGO코리아 기술팀장이 각각 △더션비주얼크리에이티브의 제작 시연 △ARRI의 컬러 매니지먼트 기술 소개 △LG전자의 버추얼프로덕션 글로벌 사례 △SGO 코리아의 실사 영상 활용 제작 시연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첨단 기술과 콘텐츠 제작의 환경을 제시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콘텐츠 제작 시연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9일 전주신산업융합지식센터에서 'LED 버추얼 프로덕션 및 비주얼라이제이션 제작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영화·영상·뉴미디어 분야의 기술을 연결하고 콘텐츠와 기업이 플라

스 되도록 새로운 기술 융합에 앞장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각계 지도자초청 신통일한국 신년하례회 개최

이상재 전북교구장 '위기에 강한 한민족 DNA, 미래를 열다' 제목 특별강연... 정병수 회장 환영사·김희수 회장 축사·전영배 회장 격려사 등 250여명 참석 뜨거운 호응



'신통일한국 강연회 및 신년하례회'가 지난 8일 전주시 통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전정희 전 국회의원과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차진각 견현왕궁 동국사 회주, 천서영 전주시 의원 및 시군 의원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전주시 각계 지도자초청 신통일한국 강연회 및 신년하례회가 지난 8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소재 통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전정희 전 국회의원과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차진각 견현왕궁 동국사 회주, 천서영 전주시의원 등 전주권의 각계 기관 단체장과 남북평화통일 주요지도자 및 시군 의원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신한국가정연합 전북교구(교구장 이상재)와 UPF전북지회(회장 정병수), 평화통일지도자 전주시협의회(회장 윤영두) 공동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윤영두 회장의 사회로 식전 영상 시청, 이수남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주시회장의 식전 공연에 이어 개최, 국민의례, 정병수 UPF전북회장의 환영

사, 김희수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회장의 축사,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지회장의 격려사, 스즈키 기미에 성악가의 축하(그리운 금강산), 이상재 신한국가정연합 전북교구장의 신통일한국 특강, 새터민 12명에 대한 격려금 전달, 이근재 평화통일지도자 전북원로회장과 전북대 특임교수인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의 신년 덕담 순으로 은혜롭게 진행됐다.

정병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한 해 전북권의 남북 평화통일운동 확산을 위해 각 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직간접 협력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 해는 을사년 새해 신년하례회와 겸해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해 한민족 선민으로서의 대처 방안 및 신통일한국의 비전 등이 제시되는 의미있는 강연회가 될 것

이다. 공사 다양한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환영의 말씀을 올린다"고 인사했다.

김희수 회장은 축사에서 "최근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체, 탄핵, 체포영장 집행 등에 따른 양 진영의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데다 무안 항공기 사고로 더욱 침통한 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 전달의 이같은 나름의 행사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생각한다"며 축하 격려의 뜻을 밝혔다.

전영배 회장은 "수십년동안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통일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제 우리 지역민, 사회 지도자들이 앞장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이 암울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 신통일한국으로 다 같이 나아가자는 이같은 행사에 대해 진심으로 귀하게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이날 특강을 한 이상재 전북교구장은 '위기에 강한 한민족 DNA, 미래를 열다' 제목으로 "위기에 빛나는 한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우리는 선민의식을 갖자. 좌우익의 낡은 이데올로기와 정반합적 정치문화극복을 통한 신통일한국 비전, 평화교육의 전당 천원군 천일성전 임공과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한가족 이상 실현 등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국난극복 대안 제시" 등의 내용으로 열강,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최준호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 순창군에 300만 원 기탁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재수)가 9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신년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매년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성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명절과 연말연시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수 회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염기남 부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순창 지역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기탁된 성금은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인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역본부(보직)(2025년 1월 9일 자)
- ▲박춘수 전북지역본부장
- ▲김병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경영전략 사업별 주요성과공개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국, 이하 공단)은 ESG경영 전략과 주요 추진성과를 담은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공단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2023년 최초 발간 후 올해 두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 공무원연금공단」이라는 ESG경영 비전하에 추진한 다양한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다. 국내외 보고기준(GRI Standards, SASB, UNGC, UN SDGs, K-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전문가의 검증 및 평가를 통해 수록 내용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기금(F) 분야별로 공단에서 추진한 주요 성과와 노력을 담았고, '전략체계, 중장기 목표, 실적 및 성과, 향후 계획'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ESG 경영에 대한 대내외 소통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ESG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발전 이끈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8명 수상

교육계 인사·지역 기관단체장 등 대거 참석... 수상자 노고 치하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위원장 두재균)가 주최하고 주관한 '제6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시상식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헌신해 온 도내 초·중·고 교직원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는 박준현 전일중 상담교사, 장진호 정읍교 교사, 한옥경 전주남중 교장, 송재봉 전주기전여교 교감, 서병원 전주덕진중 교사, 고현민 전주야중초 교감, 오충은 완주이성초 교사, 강연아 전주만성초 교사이다.

시상식에는 교육계 인사를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 교육단체 등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두재균 위원장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오현서 전북학생의회 의장, 장교환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수상자회 추진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이상덕 전북교육정책재단 이사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총연합회

전영배 부회장,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등 교육단체장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도 축하 인사를 전했다.

두재균 위원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질에 달려 있다"면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교육가족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교육공동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가족 모두가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현서 의장은 "학생회는 학생과 선생님이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최준호 기자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시작...세액 공제 혜택 쟁쟁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 공제, 최대 혜택 제공

전북자치도는 올해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도 무상급식비 인상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평균 215원 인상... 소규모학교 급식운영 어려움 해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25년도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를 6%(평균 215원) 인상한다고 오늘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및 지원체계 효율성을 위해 2024년 도내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비 집행 현황

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을 분석해 2025년 무상급식비 단가인상 기준 및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특징은 학교급식 운영 상황을 고려해 학교 규모별로 무상급식비 인상폭을 차등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를 더 큰 폭으로 인상해 작은 학교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비 내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식품비와 운영비 2개 항목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체계를 조정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025년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를 학교 실정에 맞게 차등 인상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4월 원서접수, 6월 필기시험 예정... 3월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일정'을 9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안내문에는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과 2025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주요사항 등이 담겼다. 9급과 연구사 공개·경력경쟁시험 원서접수는 4월, 필기시험은 6월 21일 실시되며, 면접시험은 8월, 합격자 발표는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9급 경력경쟁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8월, 필기시험은 11월

1일, 면접시험은 11월,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공지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수험생은 향후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오는 3월 안내되는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9급 지방공무원 선발 분야 및 인원·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며 "이를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글로벌사업으로 유학생 예비창업자 발굴 나서

창업지원단, 지역 유학생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아이디어 10개 선정, 상금 총 300만원 수여



지난 8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글로벌 경진대회인 '2024 Global Inbound Start-up Idea Competition'을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 교수)이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유학생 창업 활성화와 글로벌 청년인재 발굴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창업지원단은 지난 8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유학생 대상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글로벌 경진대회인 '2024 Global Inbound Start-up Idea Competition'을 개최했다. 창업지원단은 지난달 19일과 20일 유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아이덴티티 캠프 운영을 통해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 과정을 통해 고도화된 아이디어를 보유한 15개 팀을 대상으로 후속 멘토링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가 우

수한 10개 팀을 선정했고,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의 상금도 수여했다. 또한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예선 전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 유학생 창업 문화 확산 및 우수 청년창업 기업 육성에 나섰다. 국경수 창업지원단장은 "대학에서 유학생 중심의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하는 시스템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유학생 지역 정착에 대한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창업팀을 조기 선별 관리하여 지역 내 창업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WE-BEST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

엔제이메디칼㈜ 외 9개 기업 우수 가족회사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지난해 LINC 3.0 사업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환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WE-BEST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오늘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진행된 페스티벌에는 박노준 총장과 정희석 산학협력단장, 마상용 LINC 3.0 사업 단장, 문성철 완주군 부군수, 김호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가족회사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엔제이메디칼㈜ 외 6개 기업이

우수 가족회사로 선정돼 박노준 총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남광이앤씨 외 2개 기업도 완주군수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유인산 LINC 3.0 사업단 부단장이 지난해 추진한 주요 사업의 성과를 보고했으며, 주남진 엔제이메디칼㈜ 대표와 최태우 셀러드과이㈜ PMI이 대학과 함께 진행한 산학협력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서동균(심리학과 4년) 학생과 두윤서(태권도학과 4년) 학생이 각각 캠퍼스디자인과 현장실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HUSS 공동융합캠프 '지산학 리더십 아카데미' 성료

학생 300명 참가... "한국 인문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융합인재 양성의 장"

전주대학교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공동융합 캠프 '지산학 리더십 아카데미'를 성료했다. 이번 동계 융합캠프에서는 휴스 사업 참여 4개 컨소시엄(지역, 디지털, 글로벌

개발, 위험사회)에 소속된 총 20개 대학 인문사회 계열 학생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학문과 산업,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특강, 전북 지자체 공무원의 지역 현안 브리핑, 한옥마을 답사,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에 박진배 총장은 "전주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로 이번 캠프가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새로운 영감과 가치를 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

감을 밝혔다. 이어서 본 행사에 참석한 한국연구재단 박한석 산학협력실장은 "이번 캠프가 한국 인문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융합인재 양성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2024학년도 셀프리더십 함양 워크숍 개최

'국립대학 육성 사업 비전·전략 공유',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인문학 특강' 등 프로그램 진행

국립군산대학교는 2025년을 맞이해 직원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지난 8일 '셀프리더십 함양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무원(6급 이하

주무관), 사무원, 연구원, 대학 회계 직원 등 약 130명이 참석했으며, 오정근 기획처장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 비전·전략 공유', 경상국립대학교 한상덕 교수의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인문학 특강', 이장호 총장의 '2025년 주요 정책 방향 공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장호 총장은 "군산대학교 예자일 교

육혁신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2025년에 새롭게 시도될 '편입학 모집 단위 광역화 시행'과 'IAB+IC-PBL' 도입에 대해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강희성 호원대 총장,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선출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사진)이 2025년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총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대학교육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달 11일 군산에서 개최된 전북지역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을 전북대학교총장

협의회 제 30대 회장으로 추대하여 선출됐다. 이로써 강희성 호원대 총장은 2025년 1월부터 1년 동안 전북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제주, 강원, 대구·경북, 충북 등 지방 7개 권역 총장협의회연합의 전북권 대표 총장직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강희성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대학의 활성화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겨울철 안전운전 수칙!

안전 행동		위험 행동
<p>평소보다 안전거리 2~3배 유지 폭설시 20~60%감속 운행</p>		<p>평소와 같은 안전 거리 유지 폭설시 빠른 20~50% 가속운행</p>
<p>주행중 창문을 열어 차량 내부 환기 휴게소/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p>		<p>주행중 체온유지위한 창문 미개방 휴게소/졸음쉼터에서 쉬지않고 계속 운전</p>
<p>타이어공기압 및 마모도 점검 겨울철타이어 교체 및 장비 구비</p>		<p>365일 사계절타이어 사용 사계절내내 똑같은 타이어 공기압</p>

정읍시, 고추 비가림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 50% 지원

정읍시는 기상이변과 고추 자급을 하려... 50% 지원

정읍시는 기상이변과 고추 자급을 하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 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익산시, 동파 예방 수도시설 긴급복구반 상시 가동

익산시가 겨울철 상수도 시설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종합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상환반은 상수도과 직원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도계량기 등 동파가 우려되는 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긴급복구반을 상시 가동한다.

시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주요 요령을 보면 ▲계량기 합 보호재로 채우기 ▲한파 시 수도꼭지 약하게 열어두기 ▲계량기 동결 시 헤어드라이어 사용

시 관계자는 "동파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을 숙지해 겨울철 사고를 예방해 달라"며 "동파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내장산 일원 제설작업 완료... 관광객 맞이 이상무!

정읍시가 폭설로 인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 제설작업을 신속히 완료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 관광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자 주요 관광시설에서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작업은 국민여가캠핑장 데크 82개와 천사 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등 문화관광 일대의 주요 관광지 3곳에서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월까지 지속적으로 제설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눈이 내리는 시간이나 야간에는 방문객들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대상...창업 최대 3억, 주택구입 최대 7천5백만원 지원

군산시가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인 ▲군산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어업인 ▲군산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12월 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와 함께 군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귀어 귀촌종합센터누리집(https://www.sealife.go.kr)을 참고하면 된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군산시는 어촌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 새로운 인력의 어촌 유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군산시 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귀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산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군산원에농협, 금융자산 달성탑 수상

금융자산 5천억원 달성...최초로 준조합원까지 배당금 지급 고계곤 조합장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경쟁력 크게 향상"

군산원에농협(조합장 고계곤)은 2024년 기준 상호금융 금융자산 달성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상호금융 금융자산 달성탑은 총 예수금과 상호금융대출금을 평가하여 5,000억원 이상 달성시 수여되는 시상상으로 군산원에농협은 2024년 기준 예수금과 상호금융대출금 합계 5,000억원을 달성하여 상호금융 발전에 이바지하여 금융자산 달성탑을 수상하게 되었다.

군산원에농협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우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불안정, 중국 경기침체 불안 등의 위기의 경제가 지속됨에도 금융자산을 꾸준히 성장시키면서 연체율 1% 미만(0.76%)을 유지하며 자산건전성 최우수, 금융기관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우수한 면을 인정받아 인준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면서도 튼튼한 농협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군산원에농협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조합원을 넘어 은행 이용 고객들인 준조합원에게도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실시한 준조합원 이용과 배당은 수신, 여신, 보험, 카드를 군산원 예농협에서 이용한 고객들에게 결산이익금 일부를 고객들에게 배당



▲고계곤 조합장

으로 환원해주는 제도이다. 군산 관내 농협이 대부분 조합원에겐 결산이익 배당을 실시했으나 군산원에농협은 군산관내 최초로 준조합원까지 이용과 배당을 확대하며 대다수인 군산시민과 기업 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산원에농협 고계곤 조합장은 "군산원에농협의 금융자산 달성탑을 수상해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으며 조합원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할 때 우리 농협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대학 신입생 장학금 100만원 지원

오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이후엔 장학재단 방문 신청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본인인과 그 부모(부 또는 모 포함)로, 2025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4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다. 장학금은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월

28일 이후부터는 시민장학재단(충정로 93, 평생학습관 2층)에서도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필수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전화(063-539-55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장학재단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정읍장학재단의 2025년도 입사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 재학생, 휴학생, 취업준비생, 국가고시 준비생 등으로, 자세한 모집 요강



은 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수도권 대학 진학생 선발 기숙사비 지원

익산사랑장학재단, 서울 흥제, 동소문 등 4곳 행복기숙사생 24명 모집...월 14만 원 지원

익산시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한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울)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을 통해 서울에 위치한 행복기숙사 추천 입학생 24명을 선발하고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흥제 △동소문 △개봉동 △독산동 등 4곳이며, 기숙사비는 1인당 월 14만 원(연 168만 원)을 지원한다.

입학생 지원자격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에 돼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교육청청년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추천 입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발급 받은 합격증을 통해 각 기숙사의 모집



▲행복기숙사전경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입주를 신청해야 한다. 최종 입주 여부는 각 기숙사에서 결정하며, 입주를 완료한 경우 기숙사비가 지원된다.

행복기숙사 입주생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ilsaf.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859-5820)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울 장학재단 이사장은 "행복기숙사 지원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라며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2007년 출범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익산사랑 장학금, 지역오피닝재능성사업, 행복기숙사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부정유통 단속 관련 행안부 표창 수상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선 공로 인정

군산시가 9일 '2024년도 지역금융 활성화 유공' 분야에서 부정유통 단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거래 확인 등으로 3건을 적발해 4백 8십 6만 3천 원을 환수하는 등 부정 유통 근절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현재 시는 할인 발행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각종 정책사업에 상품권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실제 단속기간을 지정·실시하여 ▲상품권 부정 유통 적극 단속 ▲포상금 지급 등 신고 문화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전년 대비 1천 120억 원을 증액하여 4천 120억 원을 발행했다.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까지 증액하였으며,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모바일 및 카드 결

제 시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10%를 캐시백 인센티브로 적립시켜주는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기회로 앞으로 건전한 상품권 거래문화를 선도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이달 2일부터 총전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1960년생은 생일 지난 후) 시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지류 상품권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4개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4개항목 추가 확대 운영

자연재해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 등 추가...보장한도도 향상

정읍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연재해 사망과 강력범죄 피해보상 등 새로운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한도를 대폭 강화해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보장하고 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14개 보장 항목에 ▲자연재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4개 항목을 추가

해 총 18개 항목을 보장한다. 또한,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의 보장한도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집안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과 상관없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403개 경로당 한파쉼터 지정

난방비 등 120만 원씩 지원

익산시가 매서운 한파 속 난방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

익산시는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운영과 노인일자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한파를 견딜 수 있도록 익산 전역의 403개 경로당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난방 안전지대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시는 안정적인 한파쉼터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난방기기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예산 3,800만 원을 투입해 노후로 수리가 불가능한 10년 이상 사용 보일러 20대를 신속하게 교체했다.

특히 올해 한시난방비 등 사업비 120만 원을 모든 경로당에 신속히 지원해 한파대책 기간인 3월 15일까지 한파쉼터 이용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비를 마쳤다.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고령자 뿐만 아니라 수도계량기 동파나 보일러 고장으로 주거에 불편을 겪는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난방기기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025년 11월 짬뽕페스티벌 준비 시동

작년에 좋은 반응을 얻은 '짬뽕페스티벌'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군산시가 연초부터 시동을 걸고 있다.

'군산짬뽕' 먹거리 관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짬뽕페스티벌은 11월 중 짬뽕특화거리(장미동 동령길)일대에서 개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색다른 짬뽕축제를 보여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짬뽕특화거리 입점 업소는 물론, 실외 조리장에서 중식 조

리도구인 워의 진수와 불맛을 담은 먹거리와 불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축제제로 거듭나기 위한 축제 환류와 대대적인 축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운영의 묘미를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고 짬뽕의 도시 군산의 매력을 살리는 새로운 짬뽕축제로 살리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선운산도립공원, 휴양명소로 20억 투입

고창군 대표 산림휴양지에서 이용자 중심 사계절 명소로, 대대적 정비 사업 추진

고창군의 대표적 산림휴양지인 선운산도립공원이 사계절 휴양명소로 발돋움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선운산도립공원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휴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생태숲정비와 노후 시설물보수,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 등 이용자 중심의 정비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선운산 초입에 있는 '생태숲'의 대변화도 추진된다.

생태숲은 선운산에 자생하는 고유 수종보호와 생태계 보존 및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 교육장이다.

군은 생태숲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7억원을 투입해 야생화 추가식재, 방문자센터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선운산을 대표하는 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선운산도립공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3억원의 예산이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선운산도립공원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휴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투입된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 계획을 통해 선운산도립공원의 매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복지과장은 "이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징수율 개선·체납액 징수 실적 등 모든 항목서 우수, 지자체 중 1위...행안부 장관 표창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9일 시에 따르면 김제는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실적 및 관리·운영 시책을 평가해 징수율 제고와 자부재원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등 정량평가(80점)와 자체 징수 노력도 등 정성평가(20점)를 합산해 종합 점수로 이뤄진다.

시는 2024년 평가에서 징수율 개선, 체납액 징수 실적,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등 정량·정성평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평가그룹 내 지자체 중 1위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세외수입 총괄 부서인 세정과와

부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적기 체납 처분 실시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 및 자부재원 확충에 힘썼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주)테라릭스, 미국서 열린 CES 참가...부안 기술력 '주목'

부안군 신재생에너지특구 입주 기업, 국제전자제품박람회서 신재생에너지특구 세계화

부안군은 하서면 신재생에너지특구에 입주한 테라릭스(대표 김태영)가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해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테라릭스는 전북공동관을 통해 박람회장에 참여했고 이번 박람회에서도 이동용 연료전지 시스템(1.5kW)을 전시하며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테라릭스는 이번 CES 참가를 계기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부안 신재생에너지 특구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소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테라릭스의 이번 CES 참가를 통해 부안 신재생에너지특구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테라릭스와 같은 유망 기업을 적극 지원해 특구의 경쟁

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라릭스는 지난 2019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고분자 전해질 수소연료전지(PEMFC)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6년차 벤처기업으로 2022년 도내 최초 아가유니콘 기업 및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1000+사업에 선정되는 등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현장 점검

정성주 김제시장이 김제시 요촌, 성산 지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거점 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난 3일 실시한 현장 방문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요촌,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거점시설을 점검하고 각 층별 운영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거점시설 운영에 따른 자생력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관련 실과소 세부운영·관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정 시장은 "쇠퇴하는 도심의 지역 역량을 강화해 사회·경제·환경적으로 활성화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위치를 잘 살



정성주 김제시장이 김제시 요촌,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거점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리고, 새롭게 변화된 건물들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모두가 살고 싶은 김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보건소, 2024년 사업 성과 '우수'

비만예방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성과 기록, 기관개인 표창 영예

김제시(시장 정성주)보건소는 2024년 사업 시행 결과 비만예방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출산장려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영양관리 사업에서도 질병관리청 개인 표창 영예를 안았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 함에 있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 개최한 "제1회 김제시 건강체험마당"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생활실천 중요성을

을 인식하고 자기관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 결과 건강생활실천율은 전년 대비 7%p 향상된 44.5%로 도내 최고 수준이었으며 2023년 합계 출산율 또한 1.37명으로 도내 1위, 전국 4위에 해당하는 큰 쾌거를 이뤘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해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다가서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 '계절관리제' 추진

고창군이 오는 3월까지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평소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실시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군은 이 기간에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점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 수거 및 감시단을 운영한다. 또 계절 관리제 운영상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화영 부안 부군수, 발 빠른 현안업무 파악 집중

부안군, 찾아가는 주요업무보고회 의했다.

부안군은 지난 2일 취임한 정화영 부군수가 지난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직접 일선 부서를 방문해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을 보고 받는 '부군수가 직접 찾아가는 주요업무 보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군 성장동력인 세비키 경제(수소산업, 부안형 푸드플랜, 글로벌 휴양관광) 부서를 시작으로 형식적인 보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군정 현안을 심도 있게 논

의했다. 또 2024년 군정운영 성과를 토대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부서별 현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부서간 협업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정화영 부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군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활력 넘치는 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마켓, 라이브스튜디오 운영'...지역농산물 홍보 강화

고창군 온라인 쇼핑몰 '고창마켓' 라이브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를 강화한다.

10일 고창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3억6000만원을 들여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 1층에 '라이브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해당 공간에서는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전문 영상 스튜디오를 통한 라이브커머스 운영, 고창마켓 입점업체 상세페이지 제품(영상,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한다.

고창군민 누구나 고창군청 홈페이지(www.gochang.go.kr)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1인 미디어, 영상 및 사진 스

튜디오를 1일 2회 이용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판매로 입지를 다진 고창마켓과의 협업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고창마켓은 고창군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로 2021년 출범 이후 150여개 업체 459여품목을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우체국 등을 통해 수박, 복분자, 딸론, 고구마, 땅콩 등을 판매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연매출 23억 4000만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심덕섭 고창군은 "고창마켓과 라이브 스튜디오의 협업을 통해 고창의 맛과 멋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지원...부안사랑카드로 충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안군 생리용품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해 지난 22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부터 18세(2007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생)의 여성 청소년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해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청소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주요양자가 방문해 오는 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지원받은 대상자는 자격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사용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 월로부터 월 13,000원의 지원금이 생리용품 전용 부안사랑카드로 충전되며 부안사랑카드 가맹점이나 등록된 판매점에서 연말까지 사용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신청이 있어야 해당 월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1월 집중신청기간에 미신청 청소년들이 꼭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읍면별 특화 품목 핵심기술교육 진행

고창군이 지역 농업인의 신기술보급 확산을 위해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2월 4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읍면별 특화 품목 핵심기술교육으로 진행된다.

읍·면별로 진행되며, 읍면별 특화작목, 벼,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탄소중립 실천, 과수화상병 예방, 공익직불제의 무교육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특히 읍면별 특화작목으로 복분자, 두릅, 고들빼기, 콩, 땅콩 등 재배기술 교육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읍면 군민이 아니라도 희망하는 작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 강사는 내부 강사와 외부 강사진으로 구성해 최신 농업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해 새해 영농철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백송고등학교 야구부, 3년 연속 훈련지로 김제시 찾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백송 감독이 이끄는 백송고등학교 야구부 29명이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김제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 연속 김제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하는 백송고등학교 야구부 박종호 감독은 "김제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온화한 기후와 최신시설의 지평선야구장 및 체육시설이 집적화돼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김제시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스포츠 관광도시 전지훈련 최적지 김제"에 3년 연속

으로 찾아준 백송고 야구부를 환영하며, 이번 전지훈련이 2025년 대회 성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실속있는 전지훈련 시설 인프라 투자를 통해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 및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4개 종목(태권도, 야구, 배드민턴, 하키) 25개팀이 전지훈련을 왔으며 오는 20일에는 전국 중·고등부 배드민턴팀, 31일에는 전국 초등부 배드민턴팀이 방문할 예정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군, 스포츠·수소산업 메카로

유희태 군수 연초방문서 비전 밝혀...종합스포츠타운·국가산단 착공 박차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신속 추진...산단 인구유입 대비 주택단지 구축

유희태 완주군수가 9일 연초 방문지로 용진읍과 봉동읍을 찾아 스포츠, 수소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뜻을 밝혔다.

용진읍은 완주군청사 인근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단계별로 추진되면서 전북특자도를 대표하는 스포츠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이 건설됐으며 올해 어린이공원,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이 착공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완주군은 2030년까지 농구, 역도, 배구, 탁구 4종목 경기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변 편의시설인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올해 실시계획 용역

을 완료해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용진읍은 복합행정타운 입주기반 확대, 공동주택 개발로 민선 8기 이후 인구가 약 1.5배 증가해 1만 시대에 안착하는 등 지역 활력이 크게 높아졌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에 대비해 대규모 주거단지도 구축한다. 3,000여 세대의 미니복합타운과 7,000여 세대의 삼봉 2지구 등 1만여 세대 주거단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수소특화 국가산단단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라·내구성 검증센터, 수소

차 폐연료전지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등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은 2027년까지 1,40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에 대비해 대규모 주거단지도 구축한다. 3,000여 세대의 미니복합타운과 7,000여 세대의 삼봉 2지구 등 1만여 세대 주거단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농업유산인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알리고자 홍보·체험관을 조성하고,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지역작가 릴레이 전시

공모 통해 6인 선정...1회차 류재현 작가 '숲·바람의 숨결'展

완주군 명품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올해 지역작가 공모를 통해 6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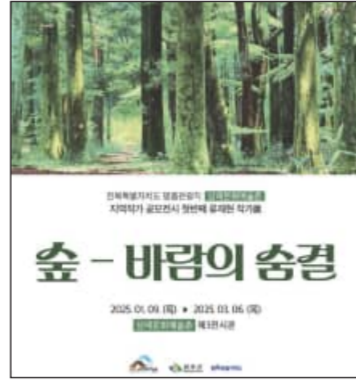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에서는 클래식명화, 지역작가 공모전시, 공예품 공모 전시, 역사 전시관 등 다양한 전시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작가 공모전은 지역작가의 역량 제고 및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이뤄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명이 응모했으며, 적합성과 작가의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류재현(1회차), 김성석(2회차), 윤대라(3회차), 박진영(4회차), 김성민(5회차), 백금지(6회차) 작가 등 6명이 선정됐다.

회화, 공예 등에서 국내외 수상 경력이 있는 뛰어난 작가들로 연말까지 약 2개월씩 총 140여 점의 전시될 계획이다.

첫 번째 주자인 류재현 작가의



전시는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 오는 3월 6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검은 캔버스 바탕에 유화 물감을 수묵화로 선명히 표현한 숲을 주제로 작품을 전시한다.

대표작인 '바람의 숨결'은 초여름 제주의 원시림 속 나무들의 초록빛 생명의 기운을 표현한 작품으로 여린 나뭇잎에 부딪혀 반짝이는 빛을 통해 외부세계와 내면세계를 연결한다. 명상적이며 자생적 공간의 표현이 방문객들의 관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 순창에 재래김·고향사랑기부금 전달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이 최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재래김과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순창군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육천원양원에 한약재를 기탁하며 고향에 대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읍 백산리 출신인 한 원장은 2005년부터 고향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매년 육천원양원에 어르신들의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한약재를 기탁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재래김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지속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 원장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고향과 이웃을 잊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작은 정성이지만 나눔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한주석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나눔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기탁해 주신 기부금은 순창군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사회적경제기업 설맛이 '공감마켓'...14일 오픈

시청 로비서 14개소 참여...지역 농특산물 제품 홍보 및 공공구매 활성화 제고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안상연)와 남원시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서덕교)는 한 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 남원시청 1층 로비에서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감마켓'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14개소가 참여하며 우수한 품질에 가치를 더한 50여종의 선물 세트가 홍보 시식 및 판매될 예정이다.

남원의 대표 특산물 김부각과 추어탕을 비롯해 명절 선물로 빼놓을 수 없는 한과·기름류·조청·장류와 웰빙 식품으로 더욱 각광받는 유기농 누룽지·수제 강정·도토리묵·떡 세트·과일 차,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수제떡볶이와 전통주 등 부담 없는 가격대로 실속 있는 상품들이 폭넓게 준비됐다고 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협동조합 비니루 없는점빵이 기획한 플라스틱 대체 생활용품 에코트래블세트 3종이 출시돼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는 오는 14일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감마켓을 개최한다.

남원 사회적경제 설 명절 선물 세트 주문접수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며, 택배 마감은 이달 21일이다. 관련 문의는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팀(063-620-5637)으로 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청사 친환경 리모델링 완료...9일 준공식

남원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청 지하층 개선공사(리모델링)를 시작, 지난해 12월 15일에 완료함에 따라 이달 9일 준공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남원시청 건물은 1992년 준공 이후 33년이 지나 매우 노후화된 상태로 특히, 기존 지하층은 누수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온 바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하층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시청 지하는 직원들이 매일 이용하는 구내식당과 각종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설문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지하공간은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배려한 최신식 주방 시설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게공간, 다양한 체력단련 기구를 설치했으며, 특히 지하의 천장 일부를 유리로 바꿔 자연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해 어둡고 칙칙했던 지하 식당이 지상층 처럼 환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처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공간으로 개선하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함은 물론 부족했던 청사 내 휴게공간을 확보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국민 참여 공모전·빅데이터 통해 5대 맛집 선정

그랑계·집밥담다·두레식당·명문제과·정옥추어탕 선정...브랜드 '남원미식'으로 적극 홍보 예정

남원을 대표하는 5대 맛집이 선정됐다.

남원시(시장 최경석)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남원의맛(가칭)공모전을 개최하고, 최근 남원을 대표하는 5대 맛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원의 맛 사업은 업소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남원의 맛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네이밍과 BI,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업소 중 최종 남원의 맛집을 찾는 영상 공모전까지 국민참여형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기획, 진행했다.

이에 따라 네이밍 공모전에는 20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남원미식 ▲남원미락 ▲자연이 빛낸 남원의 맛 3가지를 활용한 BI공모전 개최결과 최종 '남원미식'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남원미식 BI는 남원의 상징인 광한루와 남원만의 품미와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그릇에 담아 상징화한 것으로 향후 남원미식 지정판 및 테이블 페이퍼, 앞치마 등 홍보물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남원의 맛' 영상공모전 개최를 알리는 숲품 영상을 제작, 남원시 TV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조회수 10만회를 기록했다. 영상공모전 접수 빈도(30%)와 맛 평가(70%)를 거쳐 최종 '그랑계, 집밥 담다, 두레식당, 명문제과, 정옥추어탕' 5개소가 남원을 대표하는 맛집 '남원미식'으로 선정됐다.

남원시는 선정된 5개소 메뉴 등을 남원시 미식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인기 유튜브(홍삼이네)를 통한 맛집투어 컨셉 비이로그와 떡방, 5대 맛집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는 바이럴 콘텐츠, 남원시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 인터넷 검색 상위 노출 등을 통해 홍보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른 제설작업에는 군청 공무원과 운전원 등 총 113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장비는 15톤 덤프트럭 6대, 5톤 덤프트럭 1대, 1톤 트럭 2대, 굴삭기 1대, 트랙터 83대 등 다양한 제설장비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제설작업은 체계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교통량이 많은 2차선 주요도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어서 마을 진입로 및 이면도로 대한 제설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농어촌도로도 254개 노선 327.9km에 대해서도 꼼꼼한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했다.

이외에도, 군은 이번 폭설에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CCTV,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적설량과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설작업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군은 향후에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강설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한편, 군은 향후에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강설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민방위 주말 교육 도입...참석률 향상 도모

완주군이 민방위 교육을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도를 한층 높인다.

9일 완주군은 민방위 사대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2025년도 민방위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방위 교육의 참석률을 높이고,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말 교육을 도입한다. 평일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대원들을 위한 조치로 참석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은 주로 평일에 진행돼 직장인들의 참석률이 낮았다.

완주군 민방위 대원은 약 6,470명에 달한다.

주말에 진행되는 민방위 교육은 기존의 평일 교육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내용은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화재방화 방호요령 및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등이다.

기존의 집합 교육 외에도 사이버 교육도 병행해 대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 지원사업 실시

남원시 보건소장(한용재)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틀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감감자로 오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읍·면지역은 관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면사무소에, 동 지역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하면 되며 신청 후 보건소에서 개인별 1차 검진과 의치 사용법 등 교육을 시행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자가 희망하는 관내 협력 치과의원에 의뢰해 틀니 시술을 받는다.

단, 과거 보건소에서 의치(틀니) 위, 아래 시술을 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에 혜택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기록적 폭설 속 신속 제설 대응...주민 불편 최소화

순창군이 최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빠른 제설 작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8일 기준 누적 적설량이 25.7cm를 기록한 가운데, 군은 275개 노선 584.2km에 달하는 관내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군은 폭설 예보가 발표되자마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제설 대응 태세를 갖췄다. 특히, 새벽 4시부터 제설작업을 개시해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93대의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주요 도로의 제설작업을 60분 이내에 완료하는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이런 제설작업에는 군청 공무원과 운전원 등 총 113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장비는 15톤 덤프트럭 6대, 5톤 덤프트럭 1대, 1톤 트럭 2대, 굴삭기 1대, 트랙터 83대 등 다양한 제설장비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제설작업은 체계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교통량이 많은 2차선 주요도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어서 마을 진입로 및 이면도로 대한 제설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농어촌도로도 254개 노선 327.9km에 대해서도 꼼꼼한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했다.

이외에도, 군은 이번 폭설에 기상 모

이외에도, 군은 이번 폭설에 기상 모

장수군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실시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위상양)는 군민들의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 중증화 억제에 위해 오는 24일까지 마을별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장수읍, 장계면 일대 40여 개소의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인지선별검사(CIST)와 더불어 치매예방운동(뇌신경체조, 치매예방체조), 치매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한다.

검사 결과값이 '인지저하'로 나온 경우, 치매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의 진찰과 신경심리검사, 진단의학검사 및 뇌영상촬영 등을 협약병원(전주대차진병원)에서 실시하고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위상양 센터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으로 조기에 치료하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장수군 치매안심센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인지선별검사는 60세 이상 장수군민이라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지소, 진료소에 방문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치매안심센터(063-350-2670)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청소년들 진로 탐색 지원 '꿈.진.스터디룸' 호응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춘성 진안군수)이 관내 청소년들의 학습 의욕 고취와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꿈.진.스터디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꿈.진.스터디룸은 진안읍 사동팔달터 1층 공유사무실에 마련돼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지역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터디룸에서 서로 교류하며 학습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관계자는 "꿈.진.스터디룸이 관내 청소년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 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초등학생 53명 대상 영어캠프 시행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인천관광역시 영어마을에서 '초등학생 영어캠프'를 시행했다.

이번 캠프에는 재단에서 올해 장수군 관내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면별 토셀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총 53명이 참여했다. 캠프 운영은 전문 업체에 맡겨 흥미롭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됐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각종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과 팀워크 협력해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영어 학습 활동과 문화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국제적 감각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

여기에 각 나라별 예절을 영어로 배우고 직접 케이크를 꾸며보는 시간도 가졌다.

최훈식 이사장은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세계에 접하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친근하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겨울방학 동안 관내 학생들의 학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터디 카페 지원, 중학생 영·수특강, 진로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귀농·귀촌 상담 전용 전화 개설

“관련 부서 간 통합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정보 얻을 수 있어...안정적 정착 도울 것”

무주군이 귀농·귀촌인(희망자 포함)들의 상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용 전화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1551-6858'로 전화를 걸면 무주군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비롯해 각종 지원사업과 정착 관련 예로서, 창업에 비롯한 주거 지원, 그리고 농업 관련 교육 등 맞춤형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김성욱 과장은 "그동안은 귀농·귀촌을 하고 싶고 궁금한 게 있어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과 노력을 줄여주는 것부터가 귀농·귀촌인 유입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관련 부서 간에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상담 전용 전화도 개설·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담 전화를 통해 수집된 내용과 건의 사항 등은 귀농·귀촌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초 자료, 또 정착 이후의 안정적인 무주 생활을 위한 사업의 토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무주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속, 정확, 친절함 응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귀농·귀촌을 통해 무주군에 정착한 인구는 4,617세대 6,727명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집값이 비뚤어난 이사, 건축설계,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시 거주지 임대료와 농지 취득세, 청·장년·고령 은퇴 도시민의 영농 및 생활, 농지형상복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체재형 가족실업농장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23일까지 축종별 가축통계조사 실시

한우·돼지 등 주요가축 3종, 말·염소 등 기타가축 17종...축산정책 수립 자료 등 활용

장수군은 오는 23일까지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사육가구 수·사육 마릿수 등을 파악하는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 3조에 근거해 축산법상 가축 20개 축종을 전수조사해 축산정책 수립 및 가축방역 대책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장수군의 주요 가축 사육 현황은 한우 823농가 34만824두, 돼지 16농가 30만166두, 닭 66농가 1,368만327두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은 관내 주요가축 3종과 기타가축 17종을 포함한 가축 20종이다.

9일 군에 따르면 가축통계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농식품 통계시스템(KASS)을 활용해 2023년 통계자료와 조사내용을 비교·검토한 후 입력하고 전년 대비 사육두



장수군은 오는 23일까지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사육가구 수·사육 마릿수 등을 파악하는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가 10% 이상 증감한 경우 원인을 분석해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경용 축산위생과장은 "가축통계조사 결과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등 각

종 축산정책 수립과 가축방역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대설·한파 대응 총력...군민 불편 최소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제설 장비 81대·제설재 등 자재 70톤 동원 등 행정력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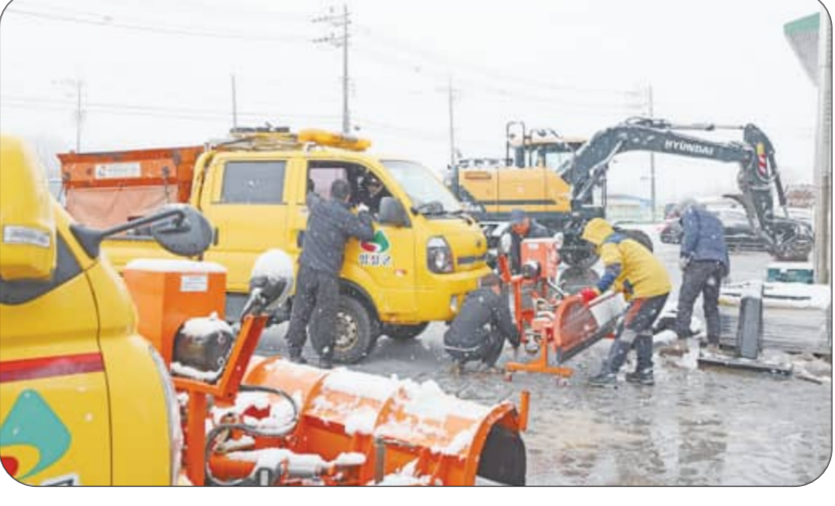
임실군이 지난 7일부터 이어지는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 등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9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5시 30분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 단계를 소집하고 제설작업에 가동 행정력을 모두 집중했다.

임실군에는 지난 6일부터 9일 오전까지 평균 적설량이 6.9cm로 집계됐다.

군은 대설 예비특보가 나온 전날 오후 4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으며, 미리 준비한 제설 장비 81대와 제설재 등 자재 70톤을 동원해 303개 주요 도로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운안 국사봉로, 임실을 수정교 등 얼어붙은 주요 도로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 진행해 출근길 교통 혼잡을 예방했으며,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광판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군은 이어지는 한파 속 결빙에 대비하기 위해 취와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한 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한랭 질환자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는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파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빈곤 거주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이 요청하는 경우

한파 응급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대설로 인한 도로 결빙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한파로 인한 재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이 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정해영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재난안전 대책본부 24시간 가동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8일 진안군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린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난 대응을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오전 진안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상황이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상수도 동파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9일 밤부터는 기온이 더 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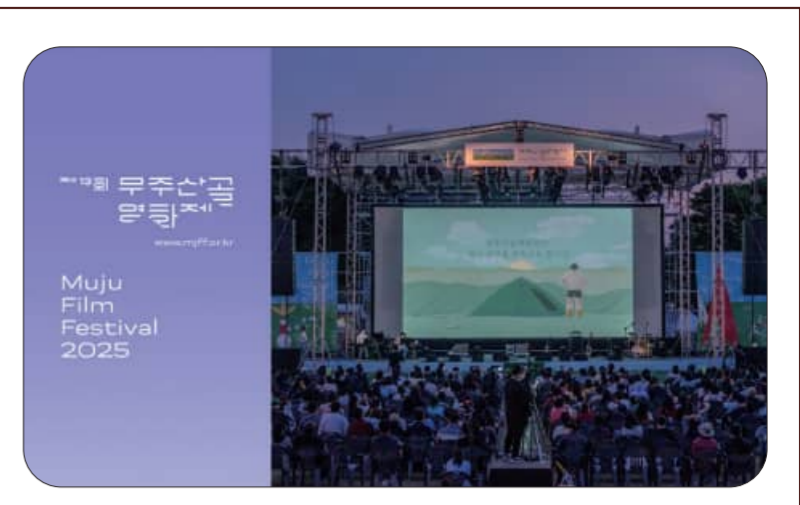
가 한파경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 군수는 한파 취약계층(노약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바깥 외출 자제를 비롯해 한파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진안군은 소방서, 경찰서를 비롯해 13개 협업부서로 구성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지난 8일부터 가동

해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부서 간 협업으로 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파 특보가 발표돼 있는 만큼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약계층은 물론 농축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살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자연 속 스크린,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 작품작 공모 시작

초록빛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6월의 영화 축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9일부터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 작품작을 공모한다.

초여름을 대표하는 영화 축제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의 자연을 스크린 삼아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고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이벤트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는 영화제의 유일한 경쟁섹션인 '창' 섹션 상영작에 대한 것으로, '창' 섹션은 우리가 사는 다채로운 세상을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시선으로 포착해 한국영화의 지평을 넓힌 동시대 한국장편영화를 선정해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9편에서 10편의 작품들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으로 선정돼 영화제 기간에 상영되며, 심사를 거친 작품 중 우수작에게는 뉴비전상 등 다양한 시상 부문에 따른 상금이 수여된다.

출품 방법은 9일부터 내달 28일 까지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www.mjff.or.kr)공지사항에서 출품 공고를 확인 후 출품 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3월 1일 이후 제작 완료된 60분 이상의 한국장편영화라면, 장르 제한 없이 출품 가능하다.

이번 '창' 섹션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나선 '무주산골영화제'는 "그간 다양한 작품들이 수상의 영광을 얻으며 주목받았다. 이번 '창' 섹션 공모 역시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영화들이 많이 출품되길 바란다" 라고 기대를 밝혔다.

출품작은 예선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팀(program@mjff.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17일까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신청받아

장수군은 벼, 고추, 토마토, 과수 등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읍·면 산업팀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농작물 병해충 선제적 대응과 적기 방제를 위해 벼 키다리병, 육묘상처치리제, 배추 뿌리혹병, 고추 탄저병·역병, 토마토 담배가루이, 토마토뿌리병, 배 흑선병, 갈색날개매미충, 과수 화상병 등 총 9종의 적용 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에는 국가 검역해충인 토마토뿌리병 방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토마토뿌리병은 발생 초기 방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전 방제가 매우 중요한 해충으로 꼽힌다.

대상자는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병해충에 대해 적기 방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건강한 임실군' 만들기...버스 활용 금연 홍보 박차

임실군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군내버스를 활용한 '금연' 광고를 시작해 금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보 내용은 버스 외부 측면에 '금연! 가족 행복의 시작',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등의 금연 홍보 문구와 함께 금연 홍보가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금연 버스 광고는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는 버스에 금연 홍보문을 부착해 시각적 홍보 효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반복, 지속적인 노출을 통한 금연 욕구 향상 및 금연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군은 금연 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보건의료원 내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정 보건소장은 "금연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실=정해영 기자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무교육 실시

무주군은 9일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전 무주읍 농민의 집 농민마당과 오후 무풍심승지문화센터에서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서정분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근로자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소개와 변경 사항 등을 설명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윤수진 농정기획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소중한 파트너로 인식해 상생의 결실을 거두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뮤지션 '고니밴드', 신규 앨범 발매

고니밴드의 두 번째 EP '고사동238'이 2025년 1월 9일 새해의 문을 연다.

록 사운드를 중심으로 신선한 사운드를 탐구하며 성장형 밴드로 거듭나고 있는 '고니밴드'.

보컬 고니(장혜선), 기타 Kove(정민석), 베이스 유현진, 드럼 김세준으로 구성된 혼성 4인조 그룹으로 전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선보이는 신보 앨범 '고사동238'에 주목한다.

전주 지역의 이름과 동명의 앨범, EP '고사동238'은 간결한 사운드의 하모니로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표방하고 있다. 본질과 태생에 집중한 이번 앨범은 흔히 사용되는 기타 더블링 기법도, 보컬 코러스 트랙도 없지만 본질에 충실한 연주와 톤으로 사운드를 채워 넣어 맥시멈(Maximum)의 쾌감을 전달한다.

한편, 이번 고니밴드의 음반과 뮤직비디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에서 주관하는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의 창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다.

/김영태 기자



민음병원 조양동 병원장, 김제시고향사랑 5백만원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9일 민음병원 2025년 첫 번째로 조양동 병원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민음병원은 김제에 위치한 의료기관으로, 개원 당시부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김제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내 최적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조 병원장은 전북아가페봉사단 이사장, 김제시의사회 및 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며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정 등에 게 꾸준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 청년공동체 '그린킵' 도지사상 수상

전북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성과발표서 우수한 성과 거둬...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호평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청년공동체 그린킵이 2024년 전북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성과발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전북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그린킵은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유통 생태계 구축과 소비 촉진에 주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호평받았다.

또한, 푸드클래스, 라이브커머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청년공동체 그린킵이 2024년 전북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성과발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스, 로컬푸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완주의 로컬푸드를 알리고, 지역 농가와 협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박하삼 대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완주 지역 경제와 청년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킵은 2024년 완주군 용진읍 W푸드스튜디오에 입주해 지역의 공동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완주=김명근기자

고창군 석정힐컨트리클럽, 이웃돕기성금 1천만원 기탁

군청 찾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성금 전해 "어려운 이웃에 희망 되고파"

고창군 석정힐컨트리클럽이 최근 고창군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는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석정힐컨트리클럽 김용술 대표는 "매년 하고 있는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어 따뜻한 겨울을 만들고 싶다"고 뜻을

전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웃을 생각하는 기탁자들의 사랑과 관심이 고창군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다.

/고창=백준규 기자



익산 금강 관음사, 소외계층에 백미 500kg 기탁

익산 금강 관음사(주지스님 정수)는 9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백미 500kg을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독거노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등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금강 관음사는 동산동 유현생 태공원 인근에 위치하며, 2021년부터 매년 꾸준한 기부를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정수 스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

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매년 백미를 기탁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나눔의 온정이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미 동산동장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금강 관음사에 감사드린다"며 "온정을 담은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생필품꾸러미 50세트 전달

남원시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8일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에서 생필품 꾸러미 50세트(환가액 5백만 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는 남원시 내 소상공인 130명이 모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로 해마다 지역 내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에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부를 이어갔다.

연합회에서는 지난해까지 현금으로 기부를 해 왔으나 이번 기부는 라면, 김, 화장지, 물티슈 등으로 구성된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 50세트를 준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기부는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해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조무하·유성길 씨, 정읍시립미술관에 예술작품 기증...감사패 전달

정읍시립미술관은 최근 정읍시청 시장실에서 귀중한 예술 작품을 기증한 조무하(서울)씨와 유성길(정읍시)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정읍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기증자들의 귀한 뜻을 기리고자 마련된 자리로 두 기증자의 노력과 정성이 정읍의 예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무하 씨는 2017년 시립미술관과의 인연을 계기로 현재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예술 작품 400여 점과 아카이브 자료 600여 권을 기증했다. 현재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절반 이상이 조 씨의 기증으로 이뤄질 정도로 지역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증된 작품들은 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정읍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우리손 진안농장,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3백만원 쾌척

우리손 진안농장은 9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3백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탤다.

진안군 성수면에 위치한 돼지농장인 우리손 진안농장은 작년에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돼지고기와 장학금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업체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이상진 부장은 "진안군의 한 기업인으로서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다"라며 "특히,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기부의 소감을 전했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지나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해주셨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장학금 기부를 결정하신으로써,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런 따뜻한 마음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결빈 기자

홍단이TV, 부안군에 인재육성 장학금 200만원 기탁

부안군 주산면 홍단이TV대표 김화중(이미션)은 지난 8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홍단이 대표는 "부안군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장학사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지역의 일원으로써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꼭 동참하고 싶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더욱더 장학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일상 속(가정, 직장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 안 쓰는 방 전등 끄기
- 복팍이나 문풍지로 따뜻한 집 만들기
- 텀블러나 개인컵을 사용 해요
-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요

〈一事一言〉



트럼프 냉대한 윤석열, 윤석열 디스하는 트럼프(1)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과 국회의 신속하고도 용기 있는 대응 덕분에 계엄 자체는 무산이 됐지만, 그 뒤처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의 최고 책임자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한데 이어 그에 동조하는 집단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그 동안 공을 들였던 바이든 미 행정부를 ‘동아줄’로 붙잡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아줄은 1월 20일로 소멸된다. 바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태롭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올인’ 하다가 시피 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문제들을 반헌법적 불법적으로 처리하여 미국 관리들을 기쁘게 했고, 백악관 민찬에서는 ‘아메리칸 파이’까지 열창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계엄 선포는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에도 난기류를 초래하고 말았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바로 그 다음날 아스펜 전략포럼에서 이를 “형편 없는 오판” “심각한 불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계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바이든 정부가 내세웠던 민주주의적 가치와 상충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엄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 당일에 필립 골

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송별 오찬을 했지만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윤석열의 계엄 선포 후 골드버그 대사가 전화를 했지만 조태열 장관이 이를 받지 않기도 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도 통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에 난기류를 초래했던 것이다.

물론 계엄이 해제된 이후 골드버그 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및 조태열 장관과 만나기는 했지만, 불편한 기류는 계속 이어졌다. 이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네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이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담화 몇 시간 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장과의 회담에서 둘이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4일에도 골드버그 대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화로 통화,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굳건히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적어도 대사관 차원에서 계엄으로 반민주적 집단을 자인한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몰려서

지 않았다.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5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은 임기 중 “한미일 공조를 복원”했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자신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말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며 지시를 내리듯 행동했다. 자신이 복원한 ‘한미일 공조’가 멈춰 서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라는 강력한 지시였다.

그 지시에 부응하듯,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23일 미국을 방문했다. 계엄에 대해 가장 거칠게 비판했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다. 그리고 캠벨 부장관은 계엄 세력이 강경히 원하던 발언으로 화답했다. 그는 24일 워싱턴DC의 국무부에서 진행된 회담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동맹에 대한 이와 같은 전문성과 헌신을 평가한다”고 말하며,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또 김차관과 캠벨 부장관은 회담에서 양국간 향후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했으며 주요 외교·외교 안보 일정을 가능한 신속하고 상호 편리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연기됐던 한미 핵협의 그룹(NCG) 회의 재개에 합의하며 동맹관계의 복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반격이 본

격화하기 시작했다. 26일 오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신호탄이었다. 그는 내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국무위원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을 일삼은 야당이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같은 날 오후 한덕수 총리는 마지 권한대행이 의회 위에 존재하는 권력인양 ‘여야 합’을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그 다음날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야당 의원을 지금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김태호 안보1차장을 핵심으로 한 외교안보팀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외교를 펼친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외교를 구사했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태도였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주·완주 통합, 시너지인가 논란인가

전북의 중심 도시인 전주와 인근 완주군의 통합 문제가 도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함께 키지는 길”이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지역 내 의견은 분분하다. 전주·완주 통합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우선 규모의 경제 효과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행정구역의 확장과 자원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두 지역이 가진 산업·경제적 자원을 결합하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 증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전주시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 경제와 직결된 주요 과제다. 완주군과 통합하면 두 지역의 인구가 합쳐져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국·도비 지원 증가와 공공기관 추가 유치 가능성을 높여 전북도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광역 행정의 시너지도 얻을 수 있다. 통합을 통해 중복된 행정 업무를 줄이고 두 지역의 도시계획과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교통, 환경, 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에는 단점도 적지 않다. 우선 완주군의 정체성 약화 우려다. 완주와 전주는 생활권과 경제구조가 다르다. 통합 시 완주의 고유한 지역 정체성과 특색이 전주 중심의 도시화 과정에서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완주군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통합 비용, 인프라 확충 비용, 공공서비스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 예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통합 초기에는 전주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도 야기될 수 있고 이는 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범기 시장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키지는 길”이라고 했지만, 유희대 군수를 비롯한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은 ‘통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단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이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 이후의 비전과 구체적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재정 문제, 행정통합 방안, 균형발전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은 양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많은 도전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통합이 단순히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양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며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독자광장

독감 비상! 예방접종·생활수칙 준수 당부

의료기관 방문 시 꼭 지켜주세요!

-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예방접종 받기
-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접종 후 20~30분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접종 당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기.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부어오름, 통증
- 발열
- 무력감
- 근육통
- 두통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예방접종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특히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2주차(2024.12.22.~12.28.) 외래 환자는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2024.12.15.~12.21.) 대비 136%나 급증했다.

시는 감염 시 증증화 위험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읍 거주 60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50세 이상 시민도 보건기관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유행하고 있고 봄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방접종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백신접종을 마치고 시민들은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보건소

금요시선

첫 발자국/ 송도 정태천

눈 내린 하얀 길을
홀로 걸어 봅니다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하얀 눈 길

첫 발자국을 남기며
눈길을 걷는 이 느낌

태초에 천지창조가
바로 이런 느낌일까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씨투에스컴용디자이너 대표이사
시집 3권 발간
CHEZ NOUS 301과 팔팔국수, 여백의 미
(에스24에서 구입가능)



문화재 열전

선운사 육층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소재지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시대- 고려시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출판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부안군, 인구절벽시대 지방소멸 극복 해답 찾는다!



부안군수 권인연

부안군은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 목표를 이루고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협심도진(協心圖進)'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와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완공되고 크루즈 기항 등 부안군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세바퀴 경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첨단방위산업 실증, 국제케이팝학교 유치 등 새만금 사업을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는 기회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는 생활인구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부안군은 각 정책의 비전을 2025년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부안군의 2030 비전을 살펴봤다.



전북 부안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착공식



▲ 중국 크루즈 선사 대표단 업무협약

◆ 세바퀴 경제 고도화, 지속 가능 지역 경쟁력 확보

부안군은 부안형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농업, 관광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먼저 부안형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하루 1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공급하게 된다.

부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실증단지 부지 조성 및 소형모빌리티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 부안수소도시 완공과 2030년 대규모 그

린수소 생산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과 연계한 RE100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은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집적화된 먹거리 핵심 인프라인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오는 6월 완공된다.

부안군은 푸드앤레포츠타운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부안형 푸드플랜 생산능가 1000농가, 소비회원 1만 5000명, 연매출액 100억원 등을 달성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체계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지방소멸 극복 해답 '생활인구' 확보 최선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을 밝히면서 생활인구 확보가 지방소멸 극복의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안군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구축,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연계해 2025년에는 월평균 40만명 유입을 목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 생활인구 연령별 비율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층이 40~60대 중장년층으로 부안군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도시라는 의미가 있다.

부안군은 자녀 양육과 함께 소비 주체의 핵심인 중장년층이 재방문할 수 있는 요인들을 더욱 강화하면서 20~30대 청년층도 찾아올 수 있는 체류인구 다각화 방안을 수립해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복원, 생태관광 등 ESG 일자리를 확대하고 부안형 탄소배출권 모델 개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생활인구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은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도내 1위와 청년 고용률 도내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생활인구 및 청년인구 확보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푸드앤레포츠타운 완공...세바퀴 경제 정책 탄력
RE100산단·방위산업 실증·국제케이팝학교 유치...첨단산업·K-문화 메카 육성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연령별 체류인구 다각화 방안 수립...생활인구 확보 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주민밀착형사업 추진...민생안정 종합대책 신속 추진

◆ RE100 산단·국제케이팝학교, 더 특별한 부안 도약 발판 '새만금'

부안군은 새만금을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이자 혁신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구상 중이다.

부안군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과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전국 최초 RE100 산단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이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3축도로 시점 변경과 가력선착장 배후부지 조성 및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새만금의 관문인 초임지를 첨단방위산업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새만금 3권역에 국제케이팝학교를 유치해 첨단 산업과 K-문화의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호남 서해안 철도망 구축 역시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와 부안-전주-김천선 동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십자형 철도망의 중심지 부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부안군 자체 철도 연결지점 용역을 추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전북 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산악관광 진흥지구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전북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 신속 재정집행, 민생경제 회복 적극 추진

부안군은 정치불안정과 대외여건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25년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안정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주민밀착형사업 등이 포함된 2025년 부안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감면,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행사 실시, 상거래 질서 위반 소비자 피해 상담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더불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LPG용기 검사비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이커머스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실태결과 같은 소상공인 가계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부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이거 대출이자 지원, 도내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주민행복·주민편익사업 조기 추진, 각종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군민과 함께 이겨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취약가구 에너지 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